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니트 기법에 관한 연구

임영자 · 권진*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니트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생하여 의생활 뿐만 아니라 주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다. 특히 의생활에 있어 니트는 모섬유의 활성화와 더불어 널리 전파되었고 현대에는 대중화된 일상복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자연환경에 의하여 모섬유가 널리 유통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천연 소재를 니트 제작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모섬유 이외의 니트 조직들의 대부분은 현대 니트 기법과는 다른 고대의 니트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어떠한 니트 기법들이 복식에 활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조선시대 현존물을 중심으로 하여 아직 연구가 미흡한 우리나라 니트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대의 니트기법은 크게 핸드니트와 기계니트로 나눌 수 있다. 핸드니트는 코바늘이나 대바늘을 이용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기계니트는 수염바늘과 래치바늘에 의하여 제작된다. 이에 비하여 고대의 니트는 현대의 니트바늘과는 달리 직접 손만을 이용하여 꼬거나 매듭을 주기도하고 하나의 귀가 있는 현대의 바늘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직하기도 하였다.

니팅(knitting)은 고대 산트리어의 그물이나 실을 짜거나 바구니를 뜬다는 의미의 'nahyati'에서 파생된 것이다. 니트의 범위는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니트는 재료와 기법을 불문하고 실의 형태를 이용하여 매듭을 만들거나 꼬기도한 피륙이나, 직기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짤 수 있는 피륙을 가리키고, 협의로는 현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니트 형태로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로 코(loop)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니트의 정의를 협의로 정

의하고 우리나라의 니트를 광복이후 활성화된 것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정의를 광의로 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니트 기법의 활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니트기법은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다양한 니트 기법이 여러 복식에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니트의 기법으로는 네팅(netting), 널바인딩(nabinding), 루핑(looping), 피싱넷(fishing net), 스프랭(sprang), 크로셋(crochet), 매크레임(macrame)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복식에서의 니트 소재들은 모섬유 사용의 환경적인 제약에 의하여 다른 다양한 천연소재들을 이용하여 복합적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그에 사용된 니트기법은 의상뿐만 아니라 모자류나 신발류, 매듭(knotting) 등의 장신구 등에서 모두 나타난다. 도롱이(Rain-mantle)나 등거리 등은 바다에 직접 착용한 니트의상의 부류이며, 모자류인 탕건이나 망건 등에 고대 니트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장식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매듭들도 광의의 니트류에 포함될 수 있다. 조선시대 복식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니트기법으로는 널바인딩이나 스프랭기법이 있으며, 장식적인 용도의 매듭은 매크레임(macrame)등의 기법과 피싱넷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 조선시대에는 현대와 같은 니트가 모섬유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보편화되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대나무, 짚, 말총, 견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한 고대의 니트기법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하고 있는 의상으로써의 니트 디자인에 현대의 니트기법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니트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심도 있는 한국 니트 역사 연구에 토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